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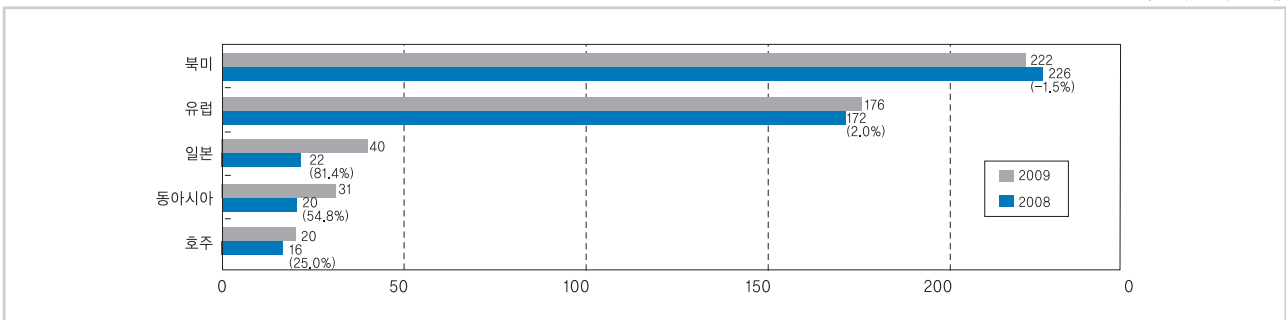
일본의 투자은행 영업환경 및 시사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에서 잇따른 대형은행 증자 등에 힘입어 81.4%의 수수료수익 신장세를 기록함. 올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의 영업환경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물경기 향방이나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아시아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은행업계의 증자추진, 하반기 신규주식시장 증가, 업황호전 등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장조사기관인 Dealogic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의 핵심 투자은행업무 수수료수익은 106.6억 달러를 기록하여 글로벌 전체지역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14%에서 20%로 크게 상승함.
 - 특히 4/4분기 아시아지역 투자은행업무 수익은 38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였던 지난 2006년 동 분기 수준(36억 달러)을 상회함.
- 글로벌 투자은행업무의 수익 신장률에 있어서는 일본이 81.4%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동아시아(중국·홍콩·한국) 지역이 54.8%를 기록함(그림 참조).
 - 아시아지역 투자은행업무 수익 순위에서는 노무라증권그룹이 자국 대형은행들의 잇따른 증자추진에 힘입어 13.1억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1위 자리를 고수한 가운데 UBS가 7억 2,400만 달러로 2위, 다이와증권그룹이 6억 2,100만 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함.

〈그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지역별 수익 현황

(단위 : 억 달러)



주 : 1) 핵심 투자은행업무는 주식자본시장(Equity Capital Market), 채권자본시장(Debt Capital Market), 인수합병(M&A) 자문업 등을 포함함.
2) 괄호안 수치는 수익 신장률임.

- 지난해 일본에서의 글로벌 투자은행 수익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무는 주식발행 인수업무로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21%에서 59%로 급등함.



-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식매각 절차가 여러 방면에서 노동집약적인 소매업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식발행액 대비 수익률이 여타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동 수익률은 일본 약 4%, 유럽 2~3%, 중국 2.5~3.5%, 한국 1.5% 등임).
- 지난해 금융업계는 국제적인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처하여 전년도의 4배를 상회하는 총 373억 달러의 자본을 확충하였으며,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를 배경으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적극적인 매입에 나섬.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재연 우려, 증시 상승탄력 둔화 및 자산운용사들의 편입비중 축소 권고,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강화 도입 연기 예정 등을 배경으로 투자은행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지난해 전체로 19%의 상승률을 시현하였으나 여타 국가들의 증시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의 정점 대비로는 4.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침.
- 최근 NEC와 히타치 등 주요기업들이 주가 희석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지 못하면서 증자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
- 바젤위원회가 전면적인 도입시기 연기를 확정하는 경우 대형은행들로서도 무리하게 증자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주식발행 인수업무 수요 자체가 수그러들 수 있음.

〈표〉 글로벌 주가지수 수익률 상위 20위 순위(2009년)

순위	국가	지역	수익률(%)	순위	국가	지역	수익률(%)
①	중국(선전)	아시아	116.9	⑪	필리핀	아시아	63.0
②	아르헨티나	중남미	115.0	⑫	파키스탄	아시아	60.0
③	인도네시아	아시아	87.0	⑬	베네수엘라	중남미	57.7
④	브라질	중남미	82.7	⑭	콜롬비아	중남미	53.5
⑤	인도	아시아	81.0	⑮	홍콩	아시아	52.0
⑥	중국(상하이)	아시아	79.8	⑯	칠레	중남미	50.7
⑦	대만	아시아	78.3	⑰	한국	아시아	49.7
⑧	노르웨이	유럽	64.8	⑱	스웨덴	유럽	46.7
⑨	싱가포르	아시아	64.5	⑲	말레이시아	아시아	45.2
⑩	태국	아시아	78.3	⑳	멕시코	중남미	43.5

주 : 각 주가지수 수익률은 자국통화 표시 기준임.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본에서 적극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자나 채무조건 조정업무(debt-exchange offer)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주주배려의 증자 촉진 차원에서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기존 주주에 대한 무상의 양도가능 신주인수권 부여제도인 주주할당발행(rights issue)의 구조설계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함(주간금융브리프(제18권 50호) 참조).
- 이외에도 상호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신규주식상장 물색,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해외기업 인수합병 주선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상기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올해 투자은행업무 전개에 있어 실물경기 향방을 감안한 기동적인 사업전략 수립 및 효율적인 조직대응 능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KIF**